

밤! 거룩한 밤! 만상이 잠든 밤, 아기 예수님 우리성전 고이 오다



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.

1818 당시 유럽 전역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황폐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인구 3,000명의 작은 마을 성 니콜라우스 성당(Church of St. Nicholas)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우리 성전과 같은 배경이었습니다.

성탄 2주전부터 성가를 반주할 오르간마저 고장으로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요세프 모어(Joseph Mohr) 신부는 황홀하고 고요함에 쌓인 밤 창밖을 내다보면서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와 기타 반주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는 성가는 없겠는가? 하는 깊은 생각으로 잠겼습니다. 이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상이



시흥4동 성당은 12월24일(토)성탄 전야 대축일미사를 34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유예절과 분향, 말씀의 전례와 성찬 예절로 이어졌다.

주임신부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구유예절로 경배 분향하고 이어 교우들의 구유 예절에 경배한 후 말씀의 전례복음 강론에서 ‘ 많은 교우들이 이 성전을 꼭 차게 해서 오늘밤은 정말 기쁨성탄절입니다.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고통을 몸소 체험의 첫 걸음인 사랑과 희생의 고난의 길을 택하여 인간들이 싫어하는 고행과 사랑을 보여 주기위해 탄생 하셨습니다.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내려 주시고 몸소 탄생하여 사랑과 자비와

잠든 밤이란 곡을 만들어내었습니다. 이 성가는 전 세계 종교인이나 무신교자도 함께 부르는 ‘고요한 밤 거룩한 밤’ 이 성가가 처음 올려 퍼진 이후 이곳을 고요한 밤 성당(Silent Night Chapel)으로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우리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4절 끝까지 성가대와 반주에 맞추어 함께 부르시다.’ 제의에 성가대 합창과 반주 속에 고요한 밤, 거룩한 밤 성가를 전 신자가 함께 가사에 감정을 넣어 합창을 하였다. 이어서 주임신부님은 ‘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 희망을 품고 미래의 더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. 주님께서 함께 와 주셨기 때문에 감사도 드려야 합니다.’란 강론과 성탄 대축일 밤 미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축복 후 성찬의 나눔이 성체 분배를 마치고 공지사항으로 성탄 준비와 꾸미기를 한 각분과와 산하단체를 호명하여 노고에 대한 격려하시고 영화 관람권과 무료식권을 수여하였다.

